

여름방학 수영특강 요구 줄 있는데...강사가 없다

광주 공공수영장 13곳...강사 구인난에 상당수 강습반 개설 못해 코로나에 직종 변경 잇따르고 고강도 업무 불구 박한 임금에 기피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들의 생존수영 특강 요구가 줄고 있지만, 광주지역 공공수영장에서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 수업 개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수영장 강사들의 경우 업무 강도는 강한데 반해 임금이 불과 후생이 민간업체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등으로 강사들이 공공수영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수업이 의무화되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생존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공공

수영장에선 수업 개설조차 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공공수영장은 동구 2곳, 서구 4곳, 남구 3곳, 북구 2곳, 광산구 2곳 등 13곳이 시설공단이나 체육재단 등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최근 광주시 통합민원 응답 사이트인 '바로응답'에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남부대수영장)에 어린이 강습반 중 초급반이 개설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글을 올렸다.

광주시는 "현재 수영장이 강사부족으로 인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달 중 초등부 기초반을 개설하겠다"고 답변을 달았지만 아직까지 초급반은 개설은 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는 "명색이 시립수영장인데 왜 어린이 초급반만 강사가 없냐"고 불만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남부대수영장 측도 난감해 하고 있다. 강사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남부대수영장은 "2015년 문연 이래 강사가 부족해 반을 개설하지 못했던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강사 모집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강좌 두개를 합쳐 여분의 강사를 마련해 초등 기초반으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사부족은 남부대수영장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3월 개장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상무국민체육센터는 두 달간 강사를 구하지 못해 전체 시

설 중 수영장만 개장하지 못했다. 정규직 강사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자 결국 비정규직으로 조건을 변경해 두 차례 추가 공고를 올린 뒤에야 강사를 구해 지난 5월 16일 개장할 수 있었다. 현재는 비정규직 강사 5명이 강좌 9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수영장의 강사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이유로 업무 강도는 높은 반면 급여가 낮아 안정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안전관리와 상근까지 맡아야 해 업무강도가 높다. 또한 공무원법에 따라 호봉제로 월급이 지급되지만 이마저도 무기계약직이라 월급이 최대 250만원선을 넘지 못한다.

반면 비정규직 강사는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4시간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월급은 시수(수업 개수)대로 지급되고 따로 의무사항도 없어 그나마 선호하는 편이다.

결국 수영강사들은 공공수영장보다 사설 어린이 수영장으로 몰리고 있다. 광주지역 민간 어린이 수영장은 20여개로, 이곳에서 일하는 수영강사들은 임금이 기본급에 달고있는 학생 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처우가 공공수영장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에 600여개가 넘는 체육 시설이 있지만 수영장만 직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 주체인 시설공단 역시 한해 운영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당장 월급을 올리긴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는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 적정선을 확보해줘야 한다"면서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공공수영장에서 일할 수영강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청, 교권강화 나서

시교육청, 학폭근절 추진단...도교육청, 협력 강사 확대 등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과 학교폭력근절 추진단을 설치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초등교사의 사망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 권한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현장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원의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원·학생·학부모의 권한 간 조화, 교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

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과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 혼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실질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협력강사 등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안전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들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교장·교감 등 관리자 역량 강화와 교원 연찬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강력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김대성 기자 bigkim@

'우크라이나 이산가족' 고려인 부자, 1년만에 극적 상봉

김레브씨, 막내 아들 두고 탈출 광주 고려인마을 도움으로 재회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막내 아들을 두고온 60대 아버지가 광주 고려인마을의 도움으로 1년만에 아들과 상봉했다.

23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김레브(68)씨가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에 살던 막내 아들 비탈리(18)군을 품에 안았다.

술하에 2남 2녀를 둔 김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전쟁을 피해 폴란드로 피신했다가 지난해 7월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고려인 동포인 김레브(오른쪽)·비탈리 부자.

성년이 되지 않은 막내아들을 제외하고 큰아들과 사위까지 모두 군대에 징집됐고, 김씨는 이 중

둘째 사위가 전쟁 중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현재 고려인마을 운영 센터에서 재고 있는 김씨는 지난 5월 고려인마을에 막내아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고려인마을 측은 비탈리군에게 항공권을 보내 1년여 만에 극적인 부자상봉이 이뤄졌다.

김씨 부자는 전쟁이 끝나도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계속 살 계획이다. 비탈리군은 체류 비자를 신청한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받는대로 귀국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버지 김씨는 "이웃 마을에서 정겹게 살았던 친구들을 고려인마을에서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너무 반갑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kdi@kwangju.co.kr

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3개월' 연장

안전성 우려 불식 설명회 조건

영광군이 한빛원자력발전소(한빛원전)의 바닷물 냉각수 사용재신청(6월 9일자 광주일보 7면)에 대해 3개월만 허가를 내줘 원전운영 제동을 이어갔다.

영광군에 따르면 한빛원전이 최근 바닷물 115억 L과 공유수면 6만 8000여㎡를 2042년 7월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영광군은 지난 21일 3개월만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3개월간의 공유수면 사용 재허가 조건으로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라는 단서도 다시 달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신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에는 5호기에서 냉각수가 누설되는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원전 측은 영광군의 권고에 따라 설명회를 여는 등 이행 조건을 충족시킨 뒤 다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5월 한빛원전 측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기존(6개월~4년)과는 다르게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영광군의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역대 가장 짧은 2개월 사용만을 허가했다.

/김민기 기자 kdi@kwangju.co.kr



일 오염수 투기 반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광주·전남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집회를 열었다. 하루 앞서 장흥에서는 어린이들이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김진수 기자 jeans@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익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온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